

# “안전한 바다’ 만들기 최선 다하겠다”

●김인창 제17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취임  
첨단기술 도입...해양사고 예방 역량 집중  
현장·정책 측면 동시 쇄신...법·제도 개선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첫걸음은 사고 이후의 대응보다 해양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김인창(56·사진) 제17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난 7일 취임, “우리의 사명은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우리 해양경찰은 각 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비함정, 항공기 등 인프라를 고루 갖춘 세계 최고의 해양 구조기관으로 성장했다”며 “이제는 예방 분야에서 더욱 전문성을 높이고 첨단 기술을 도입해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청장은 “현장 집행적인 부분과

제도·정책적 측면을 동시에 쇄신하겠다”며 “일선 현장에서 이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소관 부처에 정책 건의를 통해 현실과 거리가 있는 법과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청장은 “무엇보다도, 정확한 기상 분석에 기반한 안전관리가 이뤄져야겠다”며 “기상 악화가 예상되면 안전 해역과 위험 해역을 미리 정하고 기상이 악화되기 전에 선박을 통제하고 안전 해역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과거, 영광 송이도 예인선 사고에서 봤듯이 손을 쓸 수도 없는 최악의 기상에서 국민이 위험에 처하고 동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사례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며 “최근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선원직에 대한 기피현상이 지속되면서 선원들이 고령화되고 빈자리는 외국인선원들로 채워져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조차와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지난 1월 화물선이 기상이 나쁜

상황에서 여수 VTS의 회항 권고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운항하다 제주 우도 인근 해상에서 선저 접촉으로 파손된 사례가 있다”며 “기상 악화, 변화된 해양 산업 환경, 안전의식 미흡, 불합리한 제도 등의 요소들이 해양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찰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청장은 “어업인을 포함한 해양 종사자들의 생각을 알고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며, 마음으로 다가가야겠다”며 “우리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때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가지”고 강조했다.

제주 출신인 김 청장은 목포해양대학교를 졸업했으며, 1994년 해양경찰 간부후보 42기로 입사해 포항해양경찰서장, 해경청 수상대서과장, 제주해양경찰서장, 해경청 운영지원과장,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목포=정해선기자



TBN광주교통방송-신안군 유관기관 협약

도로교통공단 TBN광주교통방송이 신안지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선다.

연륙교 개통으로 방문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신안지역은 오는 2028년 흑산공항 개항이 예정되면서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광주교통방송은 8일 오후 2시 신안군청 회의실에서 신안군과 목포경찰서, 신안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안전한 지역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기현호 TBN광주교통방송 사장을 비롯해 박우량 신안군수, 이준영 목포경찰서장, 박연호 신안소방서장이 참석했다.

향후 4개 기관은 신안군 권역 안전협력을 강화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 공유, 기관 간 상호업무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최명진기자



## 광주매일신문, 보람아동센터 ‘NIE 순회교육’

지역신문 발전기금 미디어교육사업에 선정돼 지역 아동센터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광주매일신문이 지난 7일 광주 북구 보람지역 아동센터를 방문, 신문만들기 이론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쉽게 따라하는 신문 만들기’ 교재를 통해 어떤 사안이 뉴스가 되는지, 뉴스로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봤다. 또 글을 잘 쓰는 방법, 기사의 특성에 대한

이론교육도 이뤄졌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태혁(오정초 4)·김태민(오정초 4) 학생은 교재 속 예제 기사를 육하원칙으로 분석해 보면서 신문 만들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광주매일신문은 각 지역 아동센터 순회교육이 끝나면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신문을 공모, 시상식을 갖는다.

/박희중기자



##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지부, 화순서 하천정화 활동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도지부는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7일 화순천에서 수질 개선 및 건강한 하천 보존을 위해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및 지역민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생식물 식재, 하천정화 활동, 생활속 비점오염저감, 하천 가꾸기 등이 전개됐다. 참여자들은 하천 자정능력 향상을 위해 수질 정화작용이 탁월한 부레옥잠, 어리연을 친환경

자재인 대나무를 이용해 심었다.

부레옥잠은 질소, 인, 카드뮴, 납 등 탁월한 수질정화 능력이 있고, 물고기 산란장소 제공 및 이산화탄소를 물 속에 묶어둠으로써 기후 변화의 영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승자 회장은 “수생식물 식재와 하천정화 활동을 통해 하천 수질정화 및 생태계 개선 관리에 앞장서겠다”며 “환경 보전 운동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광주 서구 화정2동 지사협 ‘어르신 힐링 나들이’

광주 서구 화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8일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곡성 기차마을에서 힐링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화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는 ‘함께라서 행복한 어르신 힐링 나들이 사업’ 일환으로 겨울이 불편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외출이 힘든 어르신들의 우울감과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들이 사업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장미공원을 산책하며 자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어 기분 전환도 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이 화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앞으로도 코로나로 인해 중단됐던 나들이 등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를 다양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영기자

## 동강대 호텔조리관광과, 국제요리대회 전원 수상

동강대학교는 8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인 호텔조리관광과가 국제요리대회에 참여, 전원 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호텔조리관광과는 최근 일산 컨텍스에서 열린 ‘Seoul Food & Hotel Culinary Challenge 2023 (SFH)’에서 Asian Noodles 라이브 경연 부문 은메달 2개와 동메달 4개, 입상 1개를 기록했다.

동강대 호텔조리관광과 출신 학생들은 다채로운 요리를 선보이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김진영(불고기 쌀국수)·이민혁(오징어튀김 차오미엔)씨가 각각 은메달을 땀고, 김대영(마제소바)·권성준(팻타이)·마승우(인삼삼 계절쌀국수)·송현철(김치말이국수)·정세영(미극장닭 구이 차오미엔)씨가 동메달을 품에 안았다.



김대영(마제소바)·권성준(팻타이)·마승우(인삼삼 계절쌀국수)·송현철(김치말이국수)·정세영(미극장닭 구이 차오미엔)씨가 동메달을 품에 안았다.

/김대기기자



## 이병노 담양군수, 220인 나눔리더 ‘담양 1호’ 가입

이병노 담양군수가 지역 나눔문화 확산 및 개인 모금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남 사랑의 열매 ‘220인의 나눔리더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 담양 나눔리더 1호로 등록했다.

8일 담양군에 따르면 전날 열린 나눔리더 릴레이 캠페인 가입식에 이병노 군수에 이어 최용만 군의회 의장이 2호로 이름을 올렸으며, 허영호 전남아너소사이어티 대표도 가입을 마쳤다. 함께 진행된 공동모금회 배분금 전달식에서

는 차량 지원에 지체장애인협회, 빛고을공동체가 확정됐으며, 담양예수마을의집의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사업 지원, 담양군복지재단은 나눔문화확산지원사업 배분이 확정됐다.

이병노 군수는 “소중한 기부는 어려운 이들에게 세상을 더 밝고 향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심는 일”이라며 “나눔과 기부문화가 확산돼 지역사회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규기자

## 광양경제청, 매실 수확·선별작업 등 ‘농촌 일손 돕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전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인건비 상승과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시 다압면 소재 농가에서 매실 수확·선별작업을 도왔다”고 8일 밝혔다.

도움을 받은 농가는 “바쁜 영농철에 일손이 부족해 걱정이 많았는데, 무더운 날씨에도 광양경제청 직원들이 내 일처럼 도와줘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를 전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고령농가에 일손을 보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농촌일손 돕



기에 참여해 농촌의 어려움을 나누고 지역민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기자



광주보훈청, ‘보훈가족 사랑나눔’ 물품 전달

광주지방보훈청은 8일 “전날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후원으로 ‘보훈가족 사랑나눔’ 후원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해마다 호국보훈의 달에 어려운 보훈가족들을 위해 후원물품을 지원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올해도 쌀 10kg 170포와 삼계탕 100인분(640만원 상당)을 후원했다.

후원물품은 독거 6·25 참전유공자 등 생계가 어려운 보훈가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정홍식 청장은 “보훈가족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보훈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복기자



광주소방,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구조훈련

광주소방안전본부는 7-9일 3회에 걸쳐 전남 함동저수지에서 119특수구조대원과 소방서 구조대원 160여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인명 구조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수난사고 발생 시 구조대원의 수중 구조장비 숙달을 통해 현장에 강한 전문 구조대원 양성을 목표로 재난현장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한 것이다.

첫 날 훈련에서는 수난사고 발생을 가정해 소방헬기와 보트를 이용한 신속한 인명 구조와 각종 수난장비 조작·숙달을 통한 수중 적응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소방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구조 대상자와 실종자 수색, 돌발 상황 대처 등 다양한 상황별 훈련으로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김문용 소방안전본부장은 “수난사고의 경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아 전문기술이 필요한 구조 활동”이라며 “훈련을 통해 구조대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어떤 수난사고에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희기자

## 결혼

▲윤광식·이광자씨의 장남 삼일군, 곽성남·임금자씨의 장녀 지혜양=10일(토) 오후 1시30분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59 라브웨딩홀 3층 라베르홀